

# 활개치는 불법사금융...작년 피해신고, 전년 比 24.8%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지난해 신고건수 12만5000건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7건) 대비 24.8%(2만2610건)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미등록대부 2909건, 유사수신 889건, 불법 대부광고 840건, 불법 채권추심 569건, 고금리 518건, 불법중개수수료 134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보이스피싱 신고도 각각 24.9%, 10.4%씩 늘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빚지한 유사수신 행위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

나 섰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취급수수료 등을 이유로 1년간 270만5000원을 이자로 납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훌쩍 넘었다.

금감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대출금액 상계에 해당하고 해당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해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신고센터 활용을 당부하고 신고 시에는 휴대 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햇살론 등 서민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좋다고 조언했다.

뉴스스



“길쭉한 파프리카 맛보세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식품관 농산 코너에서 모델들이 길쭉한 모양의 파프리카를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등의 식품관 농산 코너에서 경남 창원에서 수확한 바나나 파프리카를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 폐업 상호 대체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

폐업한 상호업체 대체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된다.

공정위는 12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와 상호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가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와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한 상호업체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진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새 상호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대상 상호업체 가입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 “3월14일에 사탕 대신 백설기로 사랑을 전하세요”

농촌진흥청, 백설기데이 행사  
간편식 선호 및 쌀 소비 촉진



농촌진흥청은 오는 14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백설기데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립식량과학원 1층 행사장에서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사내 커플끼리 마음을 담은 백설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우리 쌀의 우수성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백설기데이(3월14일)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자는 의미와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선물 문화 정착을 돕고자 지정한 날이다.

백설기는 예로부터 흰 눈처럼 순수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어린 아이의 백일이나 첫 돌 등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오르던 음식이다.

최근에는 간편식으로 많이 이

용한다. 집에서 간단하게 백설기를 만들 수 있다.

우선 두세 명이 먹을 양을 기준으로 멥쌀가루 250g, 물 5큰술, 설탕 3큰술을 준비한다.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건포도를 넣어줘도 좋다.

쌀가루를 반죽해 체에 곱게 내려준 뒤 젖은 면보를 찜기에 깔고 체에 반죽을 담고 편평하게 눌러준다. 불이 끓으면 찜기를 올린 뒤 중불에 25분간 찌 다음에 약한 불에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백설

기가 완성된다.

남은 백설기는 냉동 보관하고 자연 해동 후 버터에 굽거나 우유와 함께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도 유용하다.

김진숙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과장은 "봄에 좋은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누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이를 통해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현대·기아차에 백기 드는 카드사...신한·삼성·롯데는?

### BC카드까지 현대·기아차 조정안 수용...신한·삼성·롯데카드는 불수용 계약해지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던 카드업계가 거대 가맹점 현대·기아차의 벽에 막혀 하나둘 백기를 들고 있다.

11일 현대차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BC카드도 이날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안에 협상했다. 현대·기아차와 협상하지 않은 카드사는 이제 신한·삼성·롯데카드 3개사다.

BC카드 관계자는 "오는 14일 예고된 계약해지를 앞두고 고객불편이 우려돼 현대차가 제시한 수수료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자 현대차는 11일(BC카드는 14일)까지 수수료 협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해지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5개 카드사(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가 결국 현대차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5개 카드사와 BC카드 BC카드를 결제망으로 사용하는 우리카드를 결제망으로 사용하는 우리카드와 일부 지방은행 카드 고객은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다.

카드업계는 분통을 터트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정부에서 역진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수수료 개편 차원인데 가맹점들이 불만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가맹계약 해지로 고객불편이 생긴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지 않나. 협상력에서 우리가 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업계 점유율 1~2위에 달하는 신한·삼성을 포함 롯데카드까지 3개 카드사의 협상이 남아있다. 이들 카드사는 11일 기준 현대·기아차와 협상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들 카드사는 현대차와의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기아차는 오는 12일부터 해지된다.

신한·삼성·롯데카드도 현재 현대·기아차에서 내놓은 수수료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견이 더 조율된 새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별 마케팅비용이나 거래량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등차가 제안한 수수료 조정안을 모두가 일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다른(협상에 이르지) 카드사들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대차에서 현

재 제안한 수수료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력에서 올라가고 하더라도 적격비용(원가) 아래의 수수료안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이는 이번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취지에도 벗어나고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할 수수료율 산정실태 현장점검에도 걸릴 수 있기에"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무엇보다 이번에 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무너질 경우 협상실적이 다른 업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유통사와 3개 통신사에도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들도 우리의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인데 만약 모든 카드사가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무너진다면 다른 업권과의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현대차와의 수수료협상은 오는 15일이 분기협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고객불편이 우려돼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들 3개사 카드도 결제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 15일 이전 출고분까지 선결제하도록 조치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